

지역 소식통

김제, 손·발 관리 등 안내 '노인건강관리활동가' 파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생활 개선을 위해 노인건강관리 활동가를 파견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3월까지 성덕면 남호마을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손·발 관리 등 건강 생활 안내를 위해 노인건강관리활동가를 성덕면 21개 마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노인건강관리활동가는 손·발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조, 요가 및 다양한 기구 등을 이용한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가 체결한 농촌협약의 일환인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며 농촌협약지원센터인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용석)가 주관해 진행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사회참여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촌협약지구인 서부생활권 7개 읍·면에도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완주군이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완주형 지역 사랑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26일 군에 따르면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지역 연고자(학교, 직장, 군복무),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대상자에게는 완주군 시설 할인 혜택과 군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놀토피아, 대둔산 케이블카 등 완주군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완주사랑군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수소거래소 설치로, 국제도시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보고회에서 특례 활용 발전 전략 발표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비전을 밝혔다.

특히, ‘수소거래소’ 설치를 제안해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26일 군에 따르면, 전날(25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서 완주군 특례 활용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는 완주군에서 발굴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조항을 대표로 농생명지구내 활용 지원, 산지관리법 적용,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담겼다.

유 군수는 발표 자리에서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조항을 발판으로 완주군은 대한민국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국가가 국가 전략으로 수소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소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핵심 첨단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힌 만큼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군이 수소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유 군수는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소거래소’ 구축을 제시했다.

유 군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국제거래소를 통해 기준 가격을 책정해 왔고, 국제거래소가 설치된 두바이, 상하이 등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했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서 완주군 특례 활용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다”며 “수소 역시 석유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구축해 운영한다면 세계 수소 유통 질서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생태계 기반 5개 사업(수소융합품소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소규모 추출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 군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와 관련해 K-문화콘텐츠 지원

센터 건립을, 출입국관리법에 특례에 대한 외국인정책 시범도시 지정을 건 의했다.

완주군은 2,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전통유산과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서 혁신도시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문화콘텐츠 시설이 집적화돼 있다.

외국인정책 시범도시는 외국인 고용, 창업, 거주 등에 필요한 통합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북이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완주군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남용 의장, 김규성 의원을 비롯한 완주농민회 이상돈 회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간담회

군의회·완주농민단체 논의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26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남용 의장, 김규성 의원을 비롯한 완주농민회 이상돈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조인철 회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 농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역 농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담아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과 예산 확보 △지원 대상 품목

및 지원 방식 △유사 지원 등 중복지원 제한 △농축산업 지원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김규성 의원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활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남용 의장은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라며 “완주군의회는 농어민이 존중받고 농업·농촌이 기본이 되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관할결정 시급” 한 목소리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률, 행정 및 도시개발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 및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조기결정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역설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각적·종점이 모두 김제시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 간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지혜가 모아진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안전한 전통시장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김제시·김제소방서·지역의용대·시장상인회 합동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설 명절을 맞아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김제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시, 김제소방서, 지역의용대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25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전통시장 내 점포별 방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자가진단표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생활화로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대처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

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 배선, 가스시설로 화재 위험성이 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을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기구 등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고,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건조한 겨울철 난방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